

36년 양대 국적항공사 체제 종지부 통합 항공사 첫 발



부산 테크센터에서 신규 CI 도장을 마친 대한항공 보잉 787-10 항공기.

대한항공 새 CI 공개



“통합 대한항공은 앞으로 마음과 마음, 세상과 세상을 하늘길로 연결하겠다는 수송의 더 뜻깊은 가치에 집중할 것입니다.”(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이 새로운 기업 이미지(CI)를 공개하고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도약에 나선다. 이번 리브랜딩은 2020년 아시아나항공 인수 발표 이후 4년 만의 변화로 36년간 이어져 온 국내 양대 국적항공사 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통합된 새로운 항공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11일 서울 강서구 본사 격납고에서 개최된 ‘라이징 나이트’ 행사장에서 대한항공 고유의 태극마크를 현대적인 이미지로 재탄생시킨 신규 CI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새롭게 공개된 대한항공의 새 로고는 기존 대한항공 태극마크에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해 세련된 이미지를

구현했다. 최근 주요 기업 브랜드가 추구하는 모던함과 미니멀리즘 트렌드를 추구하면서도 대한항공 고유의 헤리티지를 계승했다.

태극마크 옆 항공사명을 보여주는 로고타입 ‘KOREAN AIR’의 디자인은 최고의 국적 항공사다운 격식을 갖추면서도 개성을 놓치지 않았다. 서체 끝에 적용된 붓터치 느낌의 마무리와 부드러운 커브, 열린 연결점 등으로 한국식 우아함을 현대적으로 표현했다.

이날 대한항공은 새 CI를 입힌 항공기 도장, 리버리도 공개했다. 격납고 뒷편을 가리고 있던 천막이 걷히며 보잉 787-10 항공기가 등장했다. ‘프레스티지 스위트 2.0’ 등 대한항공의 새로운 기내 인테리어를 적용한 신형기 HL8515다. 대한항공 새 로고로 처음 옷을 갈아입은 이 항공기는 12일 인천에서 일본 도쿄 나리타로 향하는 KE703편에 투입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의 새로운 항공기 도장은 대한민국 대표 항공사로서의 자신감을 나타내기 위해 로고타입 ‘KOREAN’을 볼드하게 표현했다. 이 같은 방식은 ‘American(아메리칸항공)’, ‘Swiss(스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11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신규 CI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앞으로 마음과 마음, 세상과 세상 하늘길로 연결 ‘수송’ 가치 집중”
새 로고, 대한항공 헤리티지 계승 CI 입힌 항공기 도장, 리버리 공개
“누구도 넘보지 못할 안전체제로 특별한 고객의 경험 선사할 것”

스항공’ 등 주요 글로벌 항공사들도 사용하고 있다.

조 회장은 “리브랜딩을 바탕으로 누구도 넘보지 못할 안전 체계를 갖춰 특별한 고객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향후 대한항공이 나아갈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통합 대한항공은 이제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랜 시간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하나로 보듬고, 장점을 살려 문화를 융합해 세상에 볼 수 없었던 새롭고 멋진 항공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아시아나항공과 합병 이후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회장은 “현재 양사간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2년간 통합되기 전까지 최대한 간격을 좁히는게 목표”라며 “직급과 연봉, 복지 등 합리적인 선에서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일리지 통합도 고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이날 새로운 기내식 메뉴와 업그레이드 된 기내 서비스도 공개했다. 이번 기내식은 서울 한남동 소재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Cesta’의 오너 셰프인 김세경 셰프와 협업해 개발했다. 신선한 제철 식재료와 다양한 조리법을 사용한 고급 파인 다이닝을 하늘에서도 즐길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

상위 클래스의 경우 아무즈부쉬와 애플 파이저 메뉴를 고급화하여 특별한 기내식 경험을 제공한다. 빠빠요프, 뿌뿌푸르 등 새로운 스타일의 주유리와 디저트를 도입해 섬세한 맛과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국 고유의 재료와 조리법을 살린 문어 영양밥, 차돌박이 비빔밥, 전복덮밥, 신선로 등을 주요리로 선정함으로써 대표 국적항공사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했다. 일반석 기내식으로 제공되던 한식도 기준에 나물과 쇠고기 위주였던 비빔밥을 연어 비빔밥, 낙지제육덮밥 등으로 다양화한다. 또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두부팟타이, 매운 가지볶음, 로제 파스타 등 다채로운 메뉴를 도입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中企협동조합 협의요청권 국회통과 기대”

중기중앙회-더불어민주당 간담회 중기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논의 “주 52시간제, 중처법도 개선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측에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협의요청권을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 단위’ 연장근로는 현실에 맞지 않라며 ‘주 52시간제’도 개선해달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기획재정부 소속의 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도입 ▲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 ▲중소기업 기업승계특별법 제정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주요경비까지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선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공동의장), 김교흥 의원(산자중기위 책임의원), 이언주 의원(최고위원), 김원이 의원(산자중기위 간사) 등 6명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에선 김기문 회장을 비롯

해 권혁홍·배조웅 수석부회장, 심승일·노상철·한병준 부회장 등 14명이 자리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은 김원이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님께서 대표 발의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에선 대·중소기업간 거래상 지위 차이와 취약한 협상력 때문에 납품단가 등에서 대등한 협의가 어렵고, 특히 거래상 지위 고착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을 개정해 협의요청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본의 경우 협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활용해 거래상대방과 가격, 물량 등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도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ACCC)’를 통해 단체교섭을 허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주 52시간제의 경우 ‘주 단위’ 연장근로가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출·제조기업의 경우 수위탁 거래가 많아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고, 납품이 곧 기업경쟁력 및 주주와 직결돼 주 단위 연장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재료를 받는 기간과 제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기간이 모두 지연돼 납기가 늘어나면서 홍콩 거래처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고 애로를 전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노사합의시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업무량 폭증’ 등 인가요건을 명확화하고 불인정 사유를 삭제하는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현안을 챙기기 위해 310개에 달하는 직능단체를 의원별로 전담하기로 했다”면서 “중기중앙회 전담 의원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금융사 88% “비금융업 규제, 경쟁력 악화”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사 210곳 대상 비금융업 영위 현황과 개선 과제 조사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에 비금융업 진출 규제 때문에 금융업 경쟁력 전반이 악화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21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현황과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응답 회사의 88.1%는 해외 금융회사 및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비금융업 진출을 막는 국내 칸막이 규제가 산업 경쟁에 불리하다고 답했다.

또한 71.5%는 비금융 업종도 함께 영위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비금융업도 하는 회사(39.5%)보다 금융업만 하는 회사(60.5%)가 훨씬 많았다.

규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복수응답)로는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55.2%)가 가장 많았고 이어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비금융업종 범위 확대’(53.3%)와 ‘비금융사 출자한도 완화’(41.9%), ‘혁신금융서비스 개선’(40.0%),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위탁 허용’(31.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금융사가 수행할 수 있는 부수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 차원에서 한때 논의됐으나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한 투자회사 관계자는 “IT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다른 금융사와 협업하려 했으나 샌드박스 기간 중간에 참여할 수 없었다”며 “2년이 지나도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아 산업 자체가 도태될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혁신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금융사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비금융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 JP모건체이스의 자회사 체이스은행은 여행 플랫폼 ‘Chase Travel’을 출시해 신용카드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하며 2023년 미국 5위 여행사로 성장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2019년 이후 4개의 헬스케어 기업을 인수하며 M&A 및 자문 사업을 확대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